

CBS가 만든  성경 채널
알림바이블 대본집

Ep.095

최후의

만찬

(마태복음 26:26~56, 마가복음 14:32~52,
누가복음 22:14~53, 요한복음 14:1~31, 18:2~1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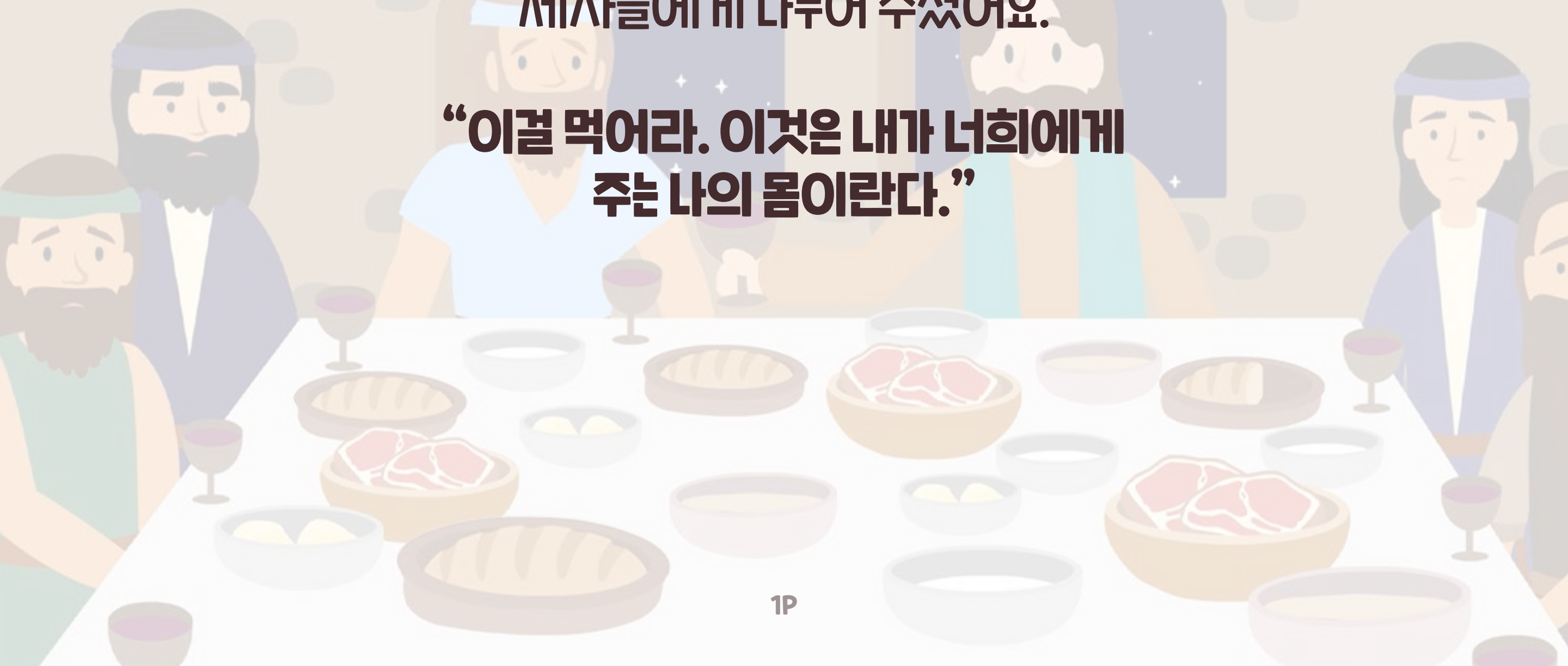


가롯 유다가 방을 나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

**“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
이 유월절 음식을 먹길 간절히 바랐단다.”**

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말씀하시는 걸까요?
예수님께서 식탁 위의 빵을 집어 드시고는
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.

**“이걸 먹어라.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
주는 나의 몸이란다.”**



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
포도주가 담긴 잔을 나누어주셨어요.

**“이제 이것을 마셔라.
이것은,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리는
나의 피, 즉 ‘언약의 피’란다.”**

제자들이 포도주를 마셨어요.
이렇게,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
마지막 만찬의 순간이 지나고 있었죠.

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,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.
“오늘 밤,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”

제자들은, 자기들이 예수님을
버리게 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.
그때 베드로가 말했죠.

**“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!
다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다 해도
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구요!
주님과 함께라면 감옥도 따라갈 수 있구요
함께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!”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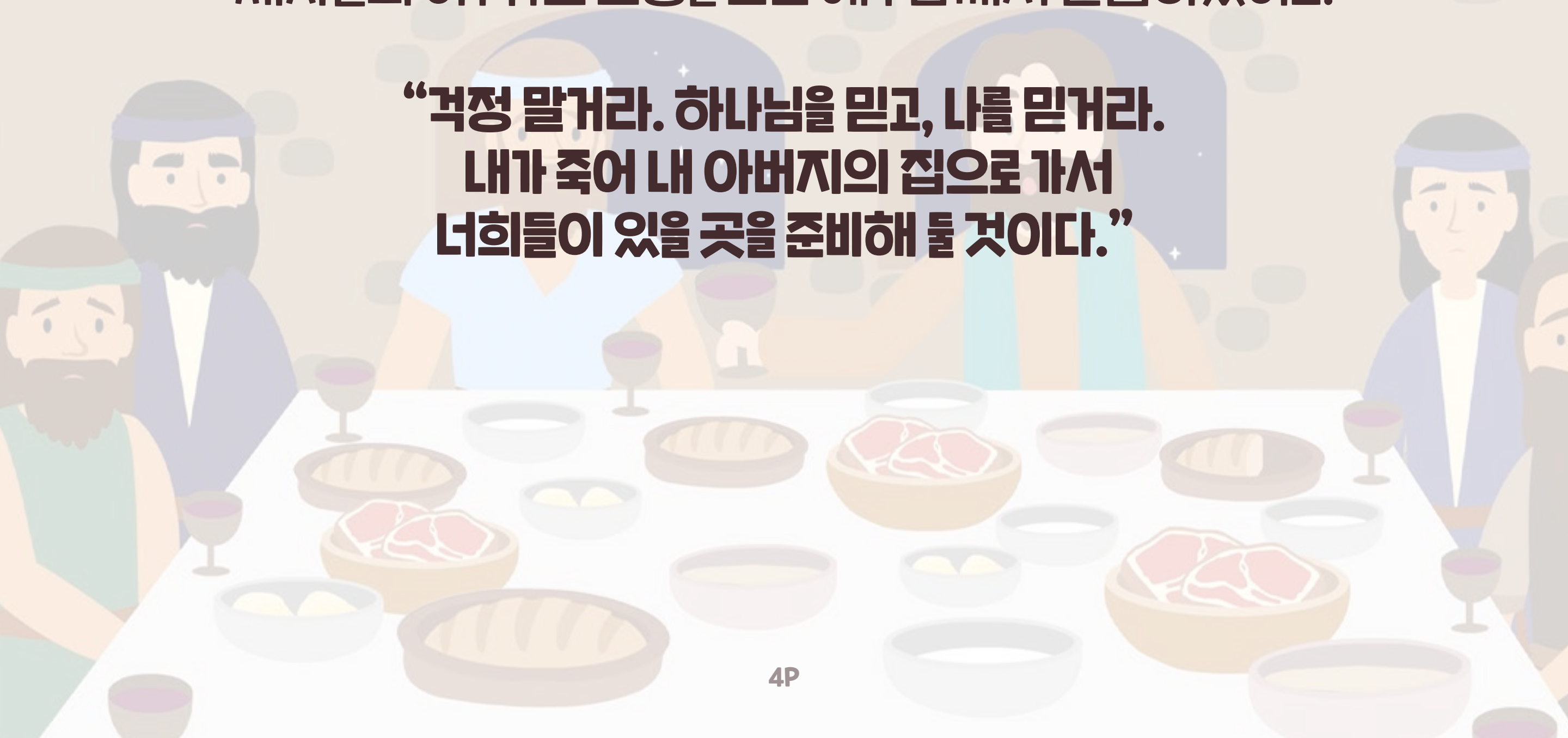
**“베드로야,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,
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고 세 번이나 부인할 것이다.”**

**“아닙니다, 주님!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리거나
모른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!!”**

베드로가 다짐하듯, 큰 소리로 외쳤어요.
다른 제자들도 모두 똑같이 말했죠.
제자들은 정말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킬 수 있을까요?

제자들의 어두워진 표정을 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

**“걱정 말거라. 하나님을 믿고, 나를 믿거라.
내가 죽어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
너희들이 있을 곳을 준비해 둘 것이다.”**



**“하지만 주님,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저희는 모르는데.
그 길을 어찌 알고 찾아가겠습니까?”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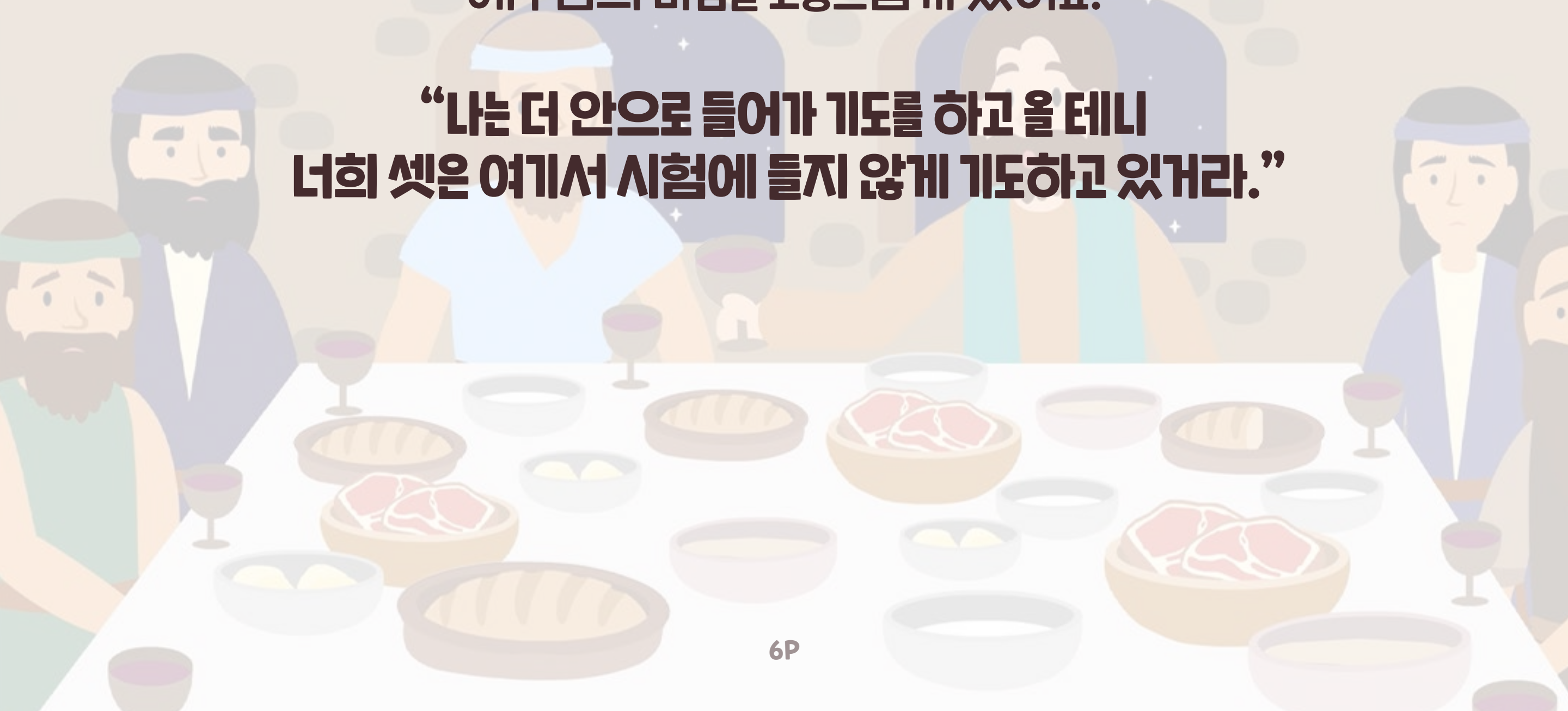
**“빌립아, 내가 너희와 이토록 오래 함께 했는데.
아직도 나에 대해 모른단 말이나?
나를 본 사람은 내 아버지를 본 것과 다름이 없단다.
자, 이제 때가 되었으니 모두 일어나 나가자꾸나.”**

**식사를 마친 예수님과 제자들은
감람산의 ‘겟세마네 동산’으로 향했어요.
동산 입구에 이르자, 예수님께서는
베드로, 야고보, 요한만을 부르시고는 함께 동산을 오르셨죠.**

예수님께서서는 마음이 몹시도 괴로우셨어요.
사람들의 죄를 씻고,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
오신 예수님이셨지만
그 과정에서 치러야 할 고난은 너무나도 큰 것이었죠.

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끝없는 죄악이
예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어요.

**“나는 더 안으로 들어가 기도를 하고 올 테니
너희 셋은 여기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있거라.”**



조금 더 깊은 곳에서 예수님께서서는
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.

**“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아버지!
할 수만 있다면 그 때가 지나가 버리기를 원합니다.
하지만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
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!”**

예수님께서서는 온 힘을 다해 기도하셨어요.
온 몸이 땀에 흠뻑 젖으실 만큼요.
그리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실수록 땀이
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답니다!

한편, 베드로와 야고보, 요한도 예수님 말씀대로
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을까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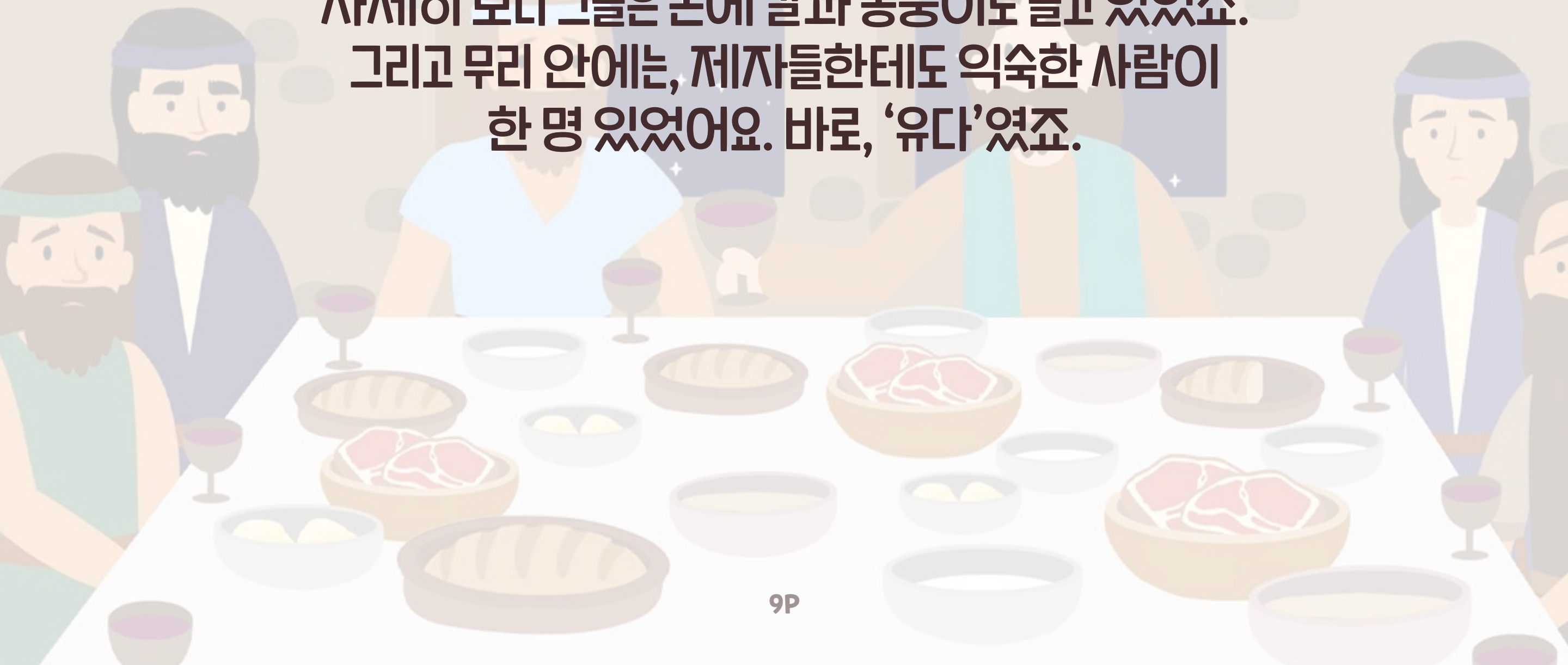
아니었어요!
너무나도 피곤했던 제자들은 결국
자고 싶은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
쿨쿨 잠이 들어 있었죠.
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
다가오는지 미처 알지 못했던 거예요.

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우면서 말씀하셨습니다.



**“그만 일어나 가자꾸나.
보아라, 나를 팔고자 하는 자가 가까이 왔구나!”**

**잠에서 깬 제자들이 동산 입구 쪽을 바라보니
수많은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
예수님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.
자세히 보니 그들은 손에 칼과 몽둥이도 들고 있었죠.
그리고 무리 안에는, 제자들한테도 익숙한 사람이
한 명 있었어요. 바로, ‘유다’였죠.**



**“대제사장님, 저들 중 제가 다가가
입맞춤 하는 사람이 예수입니다.
잘 봐두셨다 잡아가십시오. 꾀꾀.”**

우리가 점점 다가고 제자들은 점점
겁에 질린 표정이 되었어요.
그때 유다가 앞장서 나오더니
예수님께 다가왔죠.

**“헤헤, 선생님, 안녕하십니까!
인사드리러 왔습니다.”**



그러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.

“유다야, 니가 무엇하러 여기에 왔느냐?”

순간 유다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.
예수님께서서는 자기가 꾸민 모든 일을 아시는 것처럼
태연한 모습이셨거든요.
유다는 재빨리 예수님을 껴안고 입맞춤을 한 뒤
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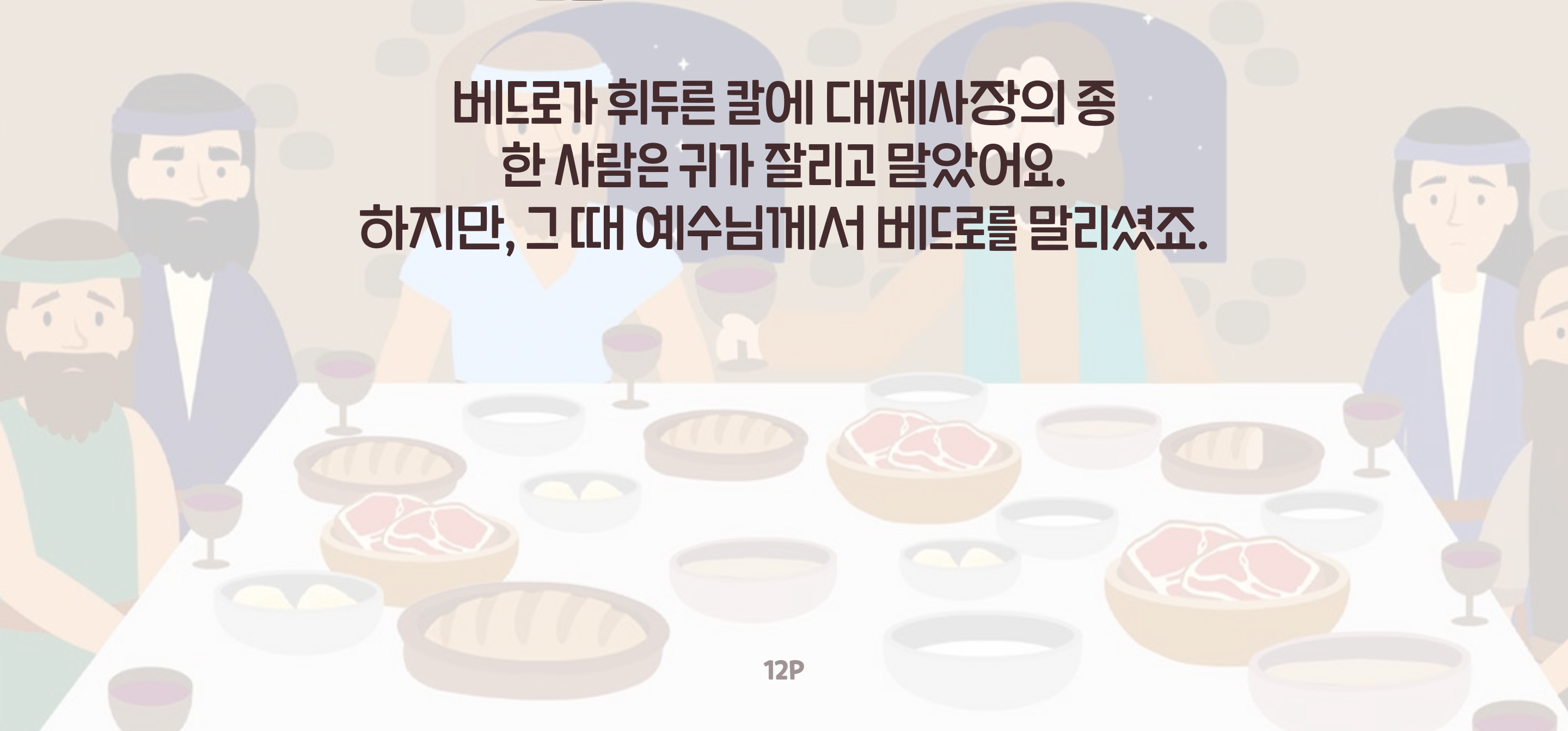


“저 자가 예수다! 당장 체포해라!”

칼과 몽둥이를 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어요.
그러자 베드로가 품에 있던 칼을 뽑아들었죠.

“이 놈들이...! 어딜 감히 주님께...!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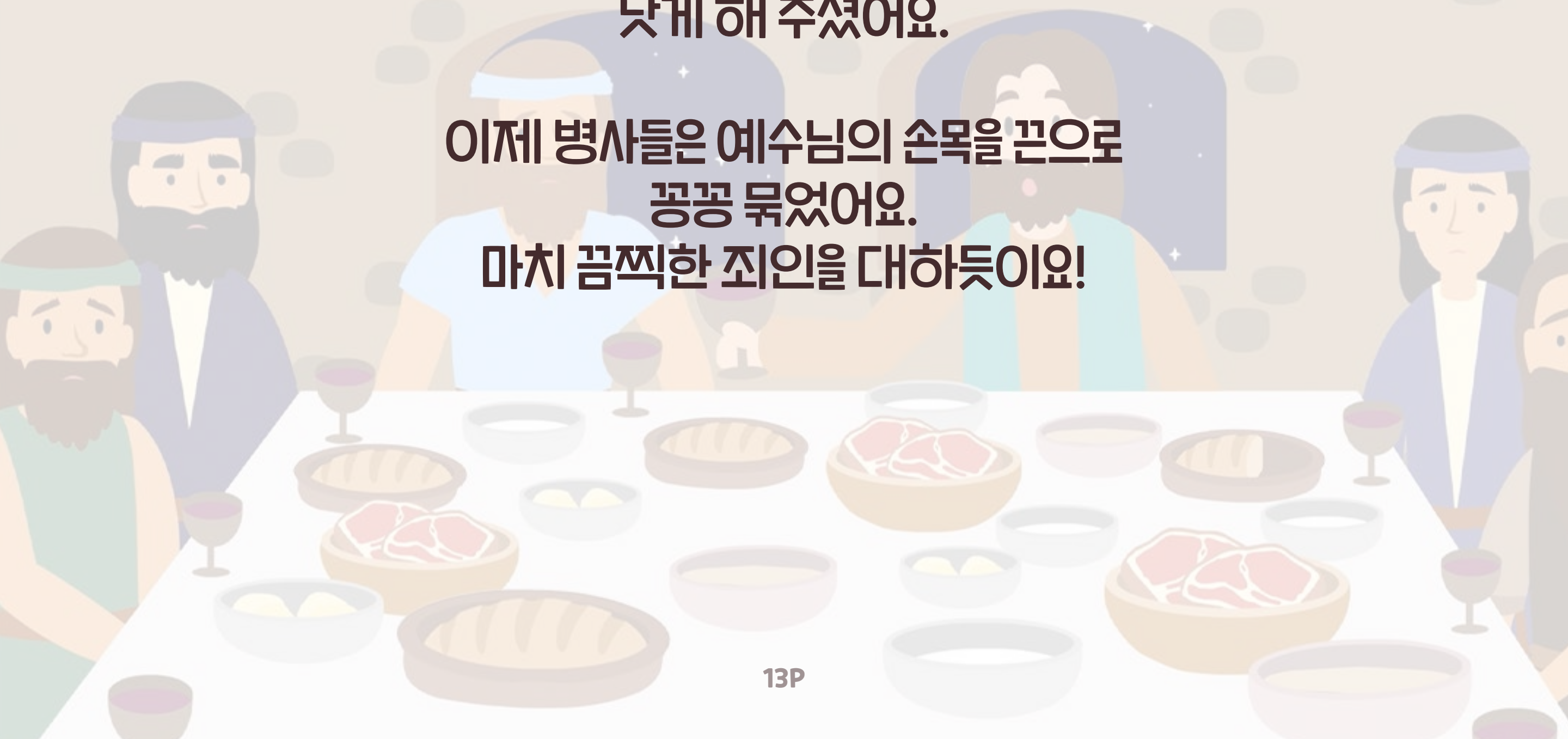
베드로가 휘두른 칼에 대제사장의 종
한 사람은 귀가 잘리고 말았어요.
하지만, 그 때 예수님께서서 베드로를 말리셨죠.



**“베드로, 칼을 쓰는 자는 칼로 죽을 것이니
도로 집어넣거라.
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
나는 해야 한다.”**

**예수님께서서는 다친 종의 귀를 만져
낫게 해 주셨어요.**

**이제 병사들은 예수님의 손목을 끈으로
꽂꽂 묶었어요.
마치 끔찍한 죄인을 대하듯이요!**



**“너희는 마치 도둑을 잡을 때처럼
칼과 몽둥이로 나를 잡는구나.
하지만 이 모든 일 역시도 선지자의 예언을
이루기 위해 생긴 것이다.”**

여러분, 그렇게 예수님께서서는 한밤중에
체포되었어요.

제자들도 그 순간 겁에 질린 나머지
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죠.

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아 간 사람들은
예수님을 없애기 위해 잔뜩 버리고 있었어요.